장일범의 클래식 세상만사

합창 베토벤

1991년 12월 난 난생 처음으로 외국에 나갔다. 사촌 누나가 살고 있는 일본 도쿄였다. 여동생과 함께 도쿄의 곳곳에 다니던 중 NHK홀에서 열리는 NHK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 공연을 보러 갔다. 놀랍게도 매일 같이 NHK홀에서 N향이라고 불리는 NHK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꼭대기 층의 저렴한 티켓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1989년에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주최한 5000명의 합창 콘서트에서 테너 파트로 합창에 참여했었기에 베토벤 '합창'은 독일어 가사를 모두 외우고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이기에 더욱 이 공연을 흥미있게 감상할 수 있었다. 소프라노에 카라얀과 함께 음반을 녹음한 솔리스트가 등장해서 무척 반가웠지만 그런데 이 공연이 그렇게 마음 편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 당시 대학생 입장에서 보기에도 난 도쿄에서 매일 밤 여기저기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그 것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전국적으로 매년 펼쳐지는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 열풍이 조금은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왜 연말에는 꼭 베토벤 9번 합창을 연주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고 의문을 갖다 보니 그 대답은 오스트리아 빈의 문화에 있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 콘체르트 하우스 빈에서 베토벤 '합창'을 공연하기 때문이었다. 올해에도 빈에서는 변함없이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합창' 공연이 12월 30일과 31일에 펼쳐진다.

하지만 빈필과 무직페어라인 홀에서는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틀 공연하는 문화를 받아들여서 도쿄에서는 12월 거의 한 달 내내 베토벤 교향곡 9번을 꼭 치러야 하는 '제사'나 집안행사처럼 열고 있다. 서구 문화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 더 확대하는 일본(매년 11월에 하는 보졸레 누보 와인 열풍도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이었고, 일본에서는 지금도 세계 보졸레 누보 생산량의 반을 소비하는 나라답게 보졸레 누보 행사를 엄청나게 치르고 있다)답게 베토벤 '합창'을 매년 연말에는 으레 기계적으로 공연해 오고 있는 것이다.

코리안심포니에서 2년간 주최했던 5000명의 대합창도 일본에서 매년 하는 행사를 가져온 것이었다. 빈의 한 문화가 일본에 의해 부풀려져서 우리나라로 찾아왔고, 이것이 이제 굳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연말에 베토벤 '합창'을 연주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안도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런데 서구 유럽과 미국의 공연장을 찾아보면 이렇게 베토벤 9번 '합창'을 연말에 자주 연주하는 경우란 없다. 파리의 샤틀레 극장에서도, 뉴욕필의 링컨 센터 에이버리 피셔홀이나 카네기홀이나 베토벤 '합창'을 연말에 연주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에이버리 피셔홀에서는 헨델의 '메시아'가 매년 공연된다. 그래서 한 때 우리나라에서는 한해는 베토벤 9번 합창과 헨델의 메시아를 격년으로 번갈아가면서 공연하던 풍토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나마도 사라진 듯하다. 무엇보다 베토벤은 이 곡을 연말에 연주하려고 작곡하지 않았다.

초연만 해도 1824년 5월 7일 빈의 케른트너 토어 극장에서 열었고, 서양에서도 빈을 제외하고는 연말이라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하나가 되었을 때라던가, 유럽연합의 출발을 알릴 때 등 뜻깊은 행사를 앞두고 연주되거나 베토벤 전곡 연주를 할 때 '합창'을 연주하는 편이다.

뉴욕필도 베토벤 '합창'을 예전에 로린 마젤이 예술감독으로 취임할 때 취임 기념 공연에서 무대에 올린바 있다. 물론 연말에 인류가 형제애를 갖고 하나가 된다는 내용과 장중하고 다이내믹한 화음의 합창교향곡이 잘 어울리는 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청중을 확보하기 쉽다는 이유 등으로 교향악단들이 고민하지 않고 레퍼토리를 합창교향곡 위주로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다.

올해에도 서울의 대부분의 교향악단을 비롯한 전국의 교향악단들이 대부분 베토벤 '합창'을 연말 프로그램으로 공연하고 있다. 이제 기계적이고, 손쉬운 레퍼토리 구성에서 벗어나 연말에 어떤 레퍼토리로 청중들을 식상하게 하지 않고 새로운 공연문화를 만들 것인지 교향악단들은 모두 고민하고 레퍼토리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음악평론가·KBS클래식 FM '장일범의 가정음악' MC〉

종교칼럼

성탄의 의미

김 재 영
광주 성안교회 담임목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의 계절이다. 성탄의 크신 은총이 온 교회와 국민들에게 넘치기 바란다. 특히 전례 없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위로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한다.

(구)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매니아에서 예전에 무려 5만5000명이 참사를 당하는 대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다. 이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스잔나라는 엄마와 4살짜리 딸아인 가이아니가 철근과 콘크리트의 잿더미 속에 갇히게 되었다.

그들은 오랜 시간 구조를 기다리며 탈진과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다. 그래도 배고픔은 목마름보다는 나았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부터 아이는 울면서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를 연발하고 있었다. 엄마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냈다.

그것은 예전에 보았던 TV 프로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서로의 피를 나누어 마시며 구조를 기다렸다는 경험담이었다. 엄마는 즉시 팔을 뻗어 유리조각을 찾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찔렀다. 그리고 그 손가락을 아이의 입에 물려주었다. 스잔나의 결단으로 그들은 잿더미 속에서 두 주 동안이나 버틸 수 있었고, 나중에는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고 한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되새겨 보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자기를 내어주는 헌신의 절기여야 하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어야 마땅하다.

아직도 마음이 마구간처럼 불결하다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마음의 정리를 하자. 근심의 먼지를 털어내고, 불평의 쓰레기를 치우고, 욕심의 오물들은 불살라 버리자. 그리고 진리의 등불을 하나 켜 보자.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자. 성탄은 연인의 절기가 아니라 낮고 약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되새기는 절기다.

요즘 우리 주위에서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온정의 손길이 경제가 좋을 때보다 더 뜨겁다는 소식을 들을 때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생각에 뿌듯해진다. 매서운 추위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은 세계적인 경제한파 속에서도 구세군 냄비를 찾는 사랑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그늘진 곳을 애써 찾아가지만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 앞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왔건만 우리 주위에는 물질적인 문제나 육신적, 정신적인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다.

2차 세계대전 당시 12월 24일에 작은 강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었다. 별빛만이 아롱지는 이 살벌한 전쟁터는 죽은 듯이 고요했다.

이때 참호 속에 앉았던 한 프랑스 병사가 고향 생각을 하며 무심코 낮은 휘파람 소리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다. 그런데 이 노래가 강을 건너 독일 보초병의 귀에 들어갔다. 독일 병사도 캐럴을 들으며 향수에 무심코 그 멜로디를 따라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다.

고향생각을 하던 다른 군인들도 모두 이 노래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고요하던 강가에는 우렁찬 캐럴의 대향연이 벌어지고 말았다. 아군도 적군도 없었다. 오직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모든 병사들은 목이 터지게 캐럴을 합창하며 성탄을 맞았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로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듯이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탄절만 같은 평화가 온 누리에 펼쳐지기를 고대한다.

꽁꽁 얼어붙어 지금도 숙청과 시퍼런 칼날로 생명을 위협하는 북녘 땅에도 탄일종이 울려 퍼져 생명을 사랑하는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올 성탄에는 크신 은총과 위로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고

정보전쟁 승리가 국민 보호의 지름길

문 현 철
초당대 교수

김일성 주석의 사위로서 40년간 북한권력의 핵심에 서있던 장성택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단심제 특별군사재판'의 판결이 있자마자 바로 기관총과 화염방사기로 처형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어디나 사람 사는 곳에는 이른바 '보편적 가치'가 있다. 이것은 대부분 문명국가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나라 운영핵심은 법치주의, 권력분립,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등을 유지하는 것이고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장성택의 처형사건'은 북한의 인권이 어느 정도인지를 충격적으로 각인시켜주었다. 이런 북한을 찬양하던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 항의하며 단식투쟁을 벌였던 일부 국회의원들은 왜 이럴 때마다 항상 침묵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3대 세습 김정은 권력기반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은 북한급변사태 대비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논의되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하여 국익수호와 국민보호를 위한 헌법국가의 현실적 문제점을 몇 가지 진단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익을 위한 정보취득과 그 선택의 현실적 어려움은 물론 선택된 정보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자. 정보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도 1941년 진주만 폭격사건이나, 2001년 911테러사건의 경우 정보의 취합에 실패한 것이라고 정보전문가들은 진단한다.

1950년 9월 맥아더 장군은 해안의 특수성을 토대로 인천지역에 북한군의 병력이 많지 않고 경계가 허술하다는 '정보'에 입각하여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막강한 독일 해군의 유보트 전단이 연합군에 의하여 하나씩 격침되면서 미국 군수물자 수송 선단의 대서양 횡단이 가능하게 한 것도, 롬멜장군이 지휘하는 독일 북아프리카군단이 연합군의 몽고메리 장군에게 패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도 지중해 봉쇄를 가능하게 한 영국의 정보력 때문이었다.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앨빈 토플러의 지적처럼 미래에도 역시 '정보전쟁' 인 것이다.

둘째, 수사권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자. 상세히 분석하여 보면 대공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국정원법상 국정원에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기는 하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국정원 홀로 독자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할 수는 없고, 반드시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정보전문가들에 의하면 헌법상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는 순간포착이며, 최종 정보의 취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것이 법적 권한으로 담보됨으로써 순간포착 정보를 신뢰도가 높은 양질의 정보로 승화시킬 수 있게 한다고 한다. 법정책학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대공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수사권이 국정원과 검찰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니라고 진단된다. 만약 수사가 잘못되어 기소된 경우 형사보상청구절차 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 정보업무 폐지론에 대하여 살펴보자. 재외국민 700만 명시대, 국내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시대, 국내 체류외국인 160만 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내부의 국가적 위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해외정보업무와 국내 정보업무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국익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미래는 정보전쟁이다. 미래를 대비하여 국정원 스스로는 물론 국민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보 강대국들은 CIA, KGB, MSS 등을 비롯하여 엄청난 규모의 정보기관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의 국익과 직결되는 많은 정보들이 우방국의 협조를 받아 취득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국익수호를 위한 정보의 취득에 있어서 외교력의 뒷받침도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금지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자기반성과 깊은 성찰을 통해 국민적 신뢰의 확보와 국익수호를 통한 국민보호 기관이라는 인식 전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국익'은 천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각종 국제회의장에 참석해보면 토론자들의 입에서는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외교적 수사가 난무한다. 그 이유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본심을 감추고 탐색전을 하는 것이거나, 직접적 언급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두 국익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社 說

박대통령 당선 1년, 과연 호남은 안녕한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1주년을 맞았지만 호남사람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인사는 물론 예산에 있어서도 호남 차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 "모든 지역과 성별, 세대의 사람들을 고루 등용해 국민의 행복과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소망이다"라고 한 말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대로 간다면 향후 4년 호남은 암담할 따름이다.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찍지 않은, 호남을 비롯한 48%의 국민과 야당을 소통 내지 통합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현 정권의 지난 1년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심경은 허탈하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단행된 총리 및 장관급과 4대 권력 기관장, 청와대 수석 이상급 인사에서 호남 출신은 단 3명에 불과했다. 차관급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단도 영남의 3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두환·노태우, 이명박 정권에서조차 없었던 일이다.

현 정부의 예산에 대한 호남 소외도 뚜렷하다. 내년도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예산 중 전남의 반영률은 5%, 광주는 40%선 인데 반해 대구와 경북은 각각 88.36%, 63.45%에 달한다. 도로·철도 등 신규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도 영남 쪽에 편중돼 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 후퇴, 야당과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는 '종북몰이'와 '공안정국'도, 소통 부재와 국론 분열 양상도 호남사람들의 시선은 우려 그 이상이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사건이 1년 내내 정국을 달구고 있지만 대통령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이 없다는 것도 호남의 시각은 야당과 맥을 같이 한다.

결론적으로 호남사람들은 '안녕들'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호남인들은 4년 후 박 대통령이 박수를 받고 퇴임하기를 바란다. 호남을 홀대한 대통령치고, 성공한 정부는 없었기 때문이다.

원룸 불법 개조 지속적 단속 필요하다

지역 건축업계에서 암암리에 성행하던 원룸 불법 방쪼개기가 무더기 철퇴를 맞았다. 전남지역의 경우 건축사 3명 중 1명이 업무정지를 당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방쪼개기는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원룸으로 설계 후 사용 승인을 받은 뒤 투룸으로 방을 나누는 불법행위다. 그동안 불법이라는 의식 없이 행해지다 보니 이번 조치로 건축사들의 충격도 크다고 한다. 행정처분 전에 충분한 계도가 부족했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남는다.

전남도는 방쪼개기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사 61명에 대해 최소 45일부터 최장 12개월까지 업무정지 조치했고, 26명은 시정명령하는 등 87명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전에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면 처벌을 받은 건축사는 모두 101명으로, 도내 전체 건축사 290명의 30%를 넘는다.

사실 불법 방쪼개기는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주차난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점이다. 1가구당 1주차장을 갖춰야 하지만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리다 보니 주차공간이 그만큼 부족할 수밖에 없다. 주택가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또 화재 발생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심심치않게 발생하는 다가구주택 화재시 불법 구조변경이 화마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뿐만아니라 불법으로 쪼개진 세대는 전세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무더기 행정조치로 불법 방쪼개기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차제에 세입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택가 주차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는 방쪼개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지역 건축업계에 이런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으로 이번 무더기 징계조치에 억울하게 연루된 지역의 건축사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구제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계도 차원에서 처리하는 게 옳다고 본다.

無 等 鼓

법의 잣대

얼마 전 미국 텍사스주에서 내려진 법원 판결 2건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텍사스주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4명을 치어 죽인 갑부집 10대 소년에게 교도소행 대신 10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해 유전무죄 논란을 낳고 있다.

에이튼 카우치라는 16세 소년은 마트에서 훔친 맥주를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하고, 이를 보고 달려온 주민 2명도 잇따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허용치의 3배를 초과한 상태였다.

최고 20년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법원은 카우치가 '어플루엔자(Affluenza)' 환자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옥에 보내지 않았다. 어플루엔자는 풍요를 뜻하는 어플루언트(affluent)와 유행성 독감인 인플루엔자(influenza)를 묶은 합성어로 흔히 부자병이라고 한다.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현대질병 중 하나로 삶에 대한 무력감, 스트레스, 쇼핑중독, 감정 통제불능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부모는 아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줬지만 어플루엔자를 심하게 앓고 있어 통제가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카우치는 1년에 45만 달러(약 4억7000만 원)가 드는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고 한다.

텍사스주 록웰 카운티 법원은 외설혐의로 기소된 매슈 시먼스(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마트에서 장난감을 고르던 12세 여자아이 앞에서 갑자기 성기를 노출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시먼스는 감옥에서 남은 인생 대부분을 보낼 전망이라고 한다. 텍사스주에선 6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조지아주에서도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 조지아주로 추방돼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음란물 소지는 미국에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성범죄에 대해 무겁게 다루는 추세지만 바바리맨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5만 원으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주운전으로 4명을 치어 죽인 부자집 아들과 바바리맨 서민 젊은이에게 내려진 대조적인 판결이 법치주의 국가 미국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대표 FAX	222-4267〉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